

이번 장에서 다룰 일련의 사건들은 표면상으로는 유대지도자와의 분쟁으로 보이지만, 더 깊게는 그 이면에 자리한 거대한 지배체제(domination system)와의 충돌이다.

- 막 2:1-12           중풍병자를 고침—죄/빚/채무 제도에 도전
- 막 2:13-17         밥상 공동체—사회생활의 근간
- 막 2:18-22         경건의 생활—금식과 축제
- 막 2:23-28         안식일 준수(먹는 것과 관련)
- 막 3:1-6            안식일에 병 고침

**중풍병자를 고침(막 2:1-12)**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든다(2:2). 여기 쓰인 단어 “모이다”(συνάγω)는 이미 살펴본 대로 “회당(συναγωγή)”과 관련된 말이다.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만남의 장소,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기존의 질서, 지배체제에서 환영 받지 못해 변두리에 처한 인생들이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도 모인 무리 중에 보이는데, 그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간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군중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붐비는 가운데(2:2), 서기관들은 앉아 있다(2:6). 이렇게 주인공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외부인 행세를 한다.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자가 친구들 손에 이끌려 예수께 온다.

친구들의 손에 들려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정죄하지만, 예수는 단지 죄 사함을 선포했을 뿐이다. 수동형으로 쓰인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능동적 주체인 하느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Your sins are forgiven by God.** 예수가 말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죄 사함을 선포할 권세가 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앞에서 문둥병자에게 “깨끗게 됨을 선포함”(1:40)과 같은 용법이고, 제사장이 하느님의 용서를 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레위기 13 장 참조). 고대 근동의 신학에서 죄 사함(용서)과 치유는 궁극적으로 모두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서기관은 말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막 2:7b)? 그들의 말 자체는 옳지만, 여기서 서기관의 논점은 하느님의 권리를 수호한다기 보다, 현 사회제도를 고수하려는 알량한 노력일 뿐이다. 그 체제 하에서 서기관은 죄의 유무, 한도를 정하고 죄 사함을 선포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 반해 예수의 논점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알아 듣기 쉬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혹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같은 뜻에 두 개의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하나는 종교적, 정치적 전문용어고 다른 하나는 일상의 언어다. “그러나”(2:10)는 당연히 후자, 곧 일상의 말이 알아듣기 쉬움을 인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어려운 종교/정치적 언어를 쓴 이유가, 인자(人子, 사람)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라 적고 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마 6:12) 우리(사람) 모두가 서로 죄/빚을 사할 권리/권세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여기서 죄는 빚(debt)과 일맥상통한다(마 6:12; 눅 11:4; 마 18:21-35). 빚을 갚지 못할 때, 그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 중풍병자의 모습은 한 사람의 피폐한 운명을 단적으로 그린다. 그가 불구의 몸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빚(죄)을 떠 앉게 되었는지 혹은 빚을 갚지 못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 그를 무기력하게(παρωλυτικός, paralyzed)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빚(죄)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배체제의 피해자로서 비관적 운명에 빠져 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만난 후 주체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가 올 때는 친구들 손에 들려 왔지만(αιρόμενον), 나갈 때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ἄρας) 나간다. 침상이 중풍병자가 처한 운명, 속박을 상징한다면, 일어나 걸음은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는 인간성 회복, 곧 죄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고대 근동에서 병은 죄의 결과로 본다. 그러므로 원인치료가 필요한데, 죄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병 고침보다 훨씬 심각한 체제(구조약)와의 대립이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2:11). 헬라이어 동사는 시제(time)와 상(相, aspect)를 함께 전하는데,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등을 말하는 반면, 상(相)은 그 동사가 전하는 행위의 종류(kind of action)를 말한다. 진행형과 미완료형이 시간의 연속성을 뜻하는데 반해, 단순 과거형(aorist)은 시간의 연속이나 완료의 정보 없이 단지 사건의 발생만 보고한다. 막 2:11 헬라이어 본문에 담긴 뜻을 풀어서 해석하면, [늘] 일어나(현재 진행형, ἔγειρε) 네 상을 [단번에] 가지고(단순 과거형, ἄρον) 집으로 [항상] 가라(현재 진행형, ὑπάγε)는 말이다. 일시적 병 고침—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아닌, 지속된 투쟁—삶의 태도—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2:12). 만일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단지 또 하나의 기적행위라면, 이는 항시 있어 왔던 사건이며 이미 경험한 일이다(1:32-34).

**"빵"—밥상 공동체(막 2:13-17)**

중풍병자 이야기가 죄/빛과 관련하여 서기관들과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바리새인과 관련해 전개된다(2:16, 18, 24; 3:6).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무대 뒤에 있지만(2:16, 18),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2:24) 나중에는 헤롯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길 꾀한다(3:6).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 더욱 전통에 충실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해준 율법 외에 장로들을 통해 구전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서기 약 200 년경 미쉬나(Mishnah)에 성문화되었다. 70 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에 따라,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등 모든 유대 종파가 설 곳을 잃고 사라졌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과 새롭게 일어난 예수운동(Jesus movement) 두 개는 살아남았다. 마가복음이 70 년을 기점으로 쓰였다고 볼 때, 이 두 종파의 개혁운동들 간의 가르침과 대립은 마가복음이 당면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후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누룩”(8:15) 역시 이와 관련해 해석할 일이다.

이어지는 세 개의 이야기는 모두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밥상공동체(2:13-17)는 누구와 함께 먹는가를 묻고, 공동체 내에서 경건생활은 금식 문제를 다룬다(2:18-22).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 역시 먹는 일과 관련이 있다(2:23-28).

빵(ἄρτος, bread)은 마가복음에만 21 번 쓰이는데, ‘식사’의 의미로도 쓰이며(3:20) 마가복음이 밥상공동체에 보이는 깊은 관심을 증거한다. 마가복음의 신학하기 구조 속에서 “빵”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자적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 몸에 영양분을 제공한다. 또 하나는 음식이 주는 상징적 의미로, 육체적 포만감과 함께 정신적인 위로, 소속감 등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을 때(신 8:3; 마 4:4) 빵과 말씀은 일견 대립 관계인 듯 하지만, 육체와 정신만큼 연관되어 있다.

세리와 죄인은 마가 공동체의 한 단면을 드러내 보인다. 죄인이란 빛진 자, 곧 세금을 내지 못한 자를 일컫는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니, 세리와 죄인(빛진 자) 이 둘은 서로 함께 하기 어려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들이 한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예수의 나눔과 포용의 신학 하기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2:17). ‘의인’과 ‘죄인’을 통해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지금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배체제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함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예수는 스스로를 의원에 비유한다. 건강한 자와 의원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지배체제에 물든—그래서 편안한(‘건강한’)—사람은 예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신학 다시하기(2:18-22)**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금식 행위는 모든 종교가 실천하는 전통적인 경건 훈련이다. 마태복음 6 장에서도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 가르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금식이 먹는 것으로부터 금욕을 강조한다면, 이는 먹을 것이 있음을 전제한다. 다른 말로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 훈련이 의미가 있다. 그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풍부한 먹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혼인집 손님과 신랑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가 금식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제자들이 금식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상황)가 아니라는 말이다. 금식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한다. 예수는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 나눔과 포용의 신앙을 가르쳤다. 잔치를 통해 신앙—경건한 생활—을 실천한다. 금식 훈련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쓰여야지, 금식을 위한 금식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다.

포도주와 부대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포도주는 예수가 가르치는 새로운 신학/신앙이 되겠고, 부대는 그 신학을 담는 틀이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붙이지 않듯, 구태의연한 체제 속에 새로운 생각을 넣을 수 없다. 둘 다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들 ‘신학 다시하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느님을 인격신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신학적 틀 안에서 새로운 신학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서로 찢어지고 해질 뿐이다(2:21). 새 술은 새 부대에—기존 신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예수는 주어진 전통(성서)을 현장에 맞게 새롭게 이해한다.

**“인자(人子)는 안식일의 주인”(막 2:23-28)**

십계명에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이 나온다(출 20:8-11; 신 5:12-15). 일손이 바쁜 농번기 때라도 안식일에 밭을 갈거나 수확을 해서는 안 된다(출 34:21). 그 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제 2의 성경처럼 여겼던 미쉬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금기 사항을 적고 있다(*m. Shabbath*, 7:2).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일종의 ‘수확(reaping)’으로 보았을까? 혹은 제자들이 길을 열려고 이삭을 잘랐으니 이것도 일종의 노동(labor)으로 보았을까? 바리새인이 지적하는 제자들의 ‘범법행위’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예수의 반응 또한 짐짓 영뚱해 보인다.

예수는 다윗이 시장할 때 하느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the consecrated bread)을 먹은 일을 상기시키며, 옛 전통을 재해석했다. 비록 안식일과 성전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안식일과 성전—거룩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본래 사람을 위해 지정된 것임을 일깨운 말이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은 내가 쉼을 얻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소와 나귀, 종과 나그네 또한 쉼을 얻기 위해서다(출 34:21). 배고픔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적는다(마 12:1). 율법이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생긴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의 뜻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통해, 성서와 전통을 오늘날에 적용할 때,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정신을 한 눈에 꿰뚫어 보아 핵심을 다루어야 함을 가르친다. 예수의 신학은 이렇게 성서와 전통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고 그렇기에 새로운 틀, 신학 다시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안식일에 병까지 고치다(3:1-6)

앞의 이야기들이 죄 사함, 밥상 공동체, 금식, 안식일에 금지사항 등 각각 한 가지 문제만 다루는데 반해, 여기서는 지배체제와의 대립이 보다 심각해진다. ‘안식일에 회당에서’라는 문학적 설정은 앞에서 예수가 더러운 영을 내어쫓는 사건을 연상케 한다(1:21). 왜 이렇게 대놓고 도전을 할까? 굳이 예루살렘 감시자의 눈을 피하려 했다면, 회당을 나와 조용히 고칠 수도 있고(1:29-31) 혹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몇 시간 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1:32-34). 더욱이 손 마른 사람이 병 고쳐주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여기서도 문둥병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병자를 고치려는 의지가 관심거리다. “당신이 원하면(if you are willing), 나를 깨끗하다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1:40).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병자를 고칠 수 있는가—기적적 사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런 일을 안식일에도 행하는지 궁금했다(2:20).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서 속의 사람들은 기적 이야기에서 체제에 대한 대립을 읽어 냈다.

예수가 바리새인의 마음(καρδία, 생각)이 완악함(막 3:5)을 지적할 때, 이것은 그들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심장)은 생각의 자리다. 오늘날 문화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말이다.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의 자리는 장부(臟腑)다. “단장(斷腸)의 미아리 고개”는 장이 끊어질듯한 아픔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마음의 둔함, 완악함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에도 쓰였다(6:52; 8:17).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지만, 종교법으로는 그를 죽일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야 했고, 헤롯당과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결국 예수는 강도(ληστίς, 정치적 혁명가)들과 함께 십자가 형을 선고 받는다(15:27).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치열한 삶이 그를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갔다.

### 신학 다시 하기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 고침이 처음(1:21-28)과 마지막(3:1-6)에 배치되어 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에서 예수의 병 고침은 ‘기적’ 이상의 메시지를 전한다. 만일 예수의 귀신축출과 병 고침이 기적을 행하는 이(miracle worker)로서 역사에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신의 능력이 소진(消盡)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폐기해야 한다면, 이 역시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수의 병 고침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려면, 우리의 말로 재생되어야 한다. 왜 그 때에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어야 할까? 지금은 없나? 병과 귀신들림 그리고 고침/회복은 제국주의 상황에서 자의식, 신학의 재발견을 의미한다.

질병(disease)과 고통(illness)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질병이 육체의 병이라면, 고통은 그로부터 파생된 마음의 병이다. 사회적 격리가 가져온 불필요한, 부당한 아픔이다.

고대 사회에서 고통이란 육체적이자 사회적 현상이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불구의 몸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이었다. 그러므로 병 고침이란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재확립함을 요구하게 된다(Malina and Rohrbaugh,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Synoptic Gospels*, 363).

생각해 보기

1. 나를 예수를 대적하는 자(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의 자리에 놓고 볼 때, 예수의 행적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2. 내가 겪었던 마음의 병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